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중단적 영향

안기선^{1*}, 김윤정¹
¹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Longitudinal and short term effects of senior life plans of the middle aged employee on life satisfaction

Gi-Seon An^{1*} and Yun-Jeong Kim¹

¹Elderly Welfare Doctoral, Hanseo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중단적인 영향력을 파악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2001년(4차년도) 데이터와 2008년도(11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과 삶의 만족도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고령취업자는 8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건강이 나빠지고 직업이 불안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노후생활계획, 신체적 노후생활계획은 중간수준 이하이지만, 관계적 노후생활계획,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은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삶을 즐기기 위한 여가사회 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의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유일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의 노후생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준비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와 국가적으로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gave an insight into senior life plan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 aged employee over 45 and under 60 years of age, listed in the KLIPS data for 2001 (4th year) and 2008 (11th year), so as to grasp levels of senior life plans of the middle aged employee as well as the longitudinal and short term effects of senior life plans on life satisfaction. The study findings showed as follow: First, For the period of years, the middle aged employees' health got worse and jobs got instable. Second, economic and physical senior life plans of the middle aged employee turned out below an average of three points which means preparations made below the normal level, whereas senior life plans in terms of relation and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came out with more than an average of three points, respectively, which means preparations made above the normal level. Third, as a result of looking into longitudinal effects of the 2001 senior life plans on life satisfaction, the level of senior life plans for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got higher, life satisfaction stayed higher in the year of 2001. In 2008, however, the higher level of economic plans for senior life came out with a higher rate of life satisfaction. From a short-term perspective, therefore, leisure and social activities to enjoy life impose a great impact on life satisfaction, whereas from a long-term viewpoint economic plans for senior life is regarded to be of greater importance.

Key Words : Middle aged employee, Senior life plan, Life satisfaction, Logitudinal effect

본 논문은 한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재 구성 하였음.

*Corresponding Author : Gi-Seon An

Tel: +82-42-689-6078 email: an8302@hanmail.net

접수일 12년 04월 24일

수정일 (1차 12년 06월 20일, 2차 12년 06월 27일)

게재확정일 12년 07월 12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는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정년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취업자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다. 특히 IMF 이후에는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으로 점점 이른 나이에 현직에서 물러나고 있지만, 한번 현직에서 물러난 중고령취업자는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간의 직업적 역할에서 경쟁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생산기술의 기계화, 자동화 등으로 기업의 노동력이 감소하여 중고령자의 재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으며, 전직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어려워져 이른 나이에 완전은퇴를 경험하게 된다. 사회적으로 직업적 역할을 상실한 중고령자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더불어 가정의 생활비를 제공하던 가정의 역할도 상실하게 되면서 집안 내 권위도 낮아지게 되는 등[39] 중고령자의 삶이 불안한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중고령자의 기대여명은 상당히 길다. 2011년도 통계청의 생명표를 보면 55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28.27년, 60세인 사람은 23.92년으로 나타났다[40]. 이러한 통계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조기 은퇴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의 상황에서 정상적인 은퇴를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현재의 중고령 취업자는 은퇴 이후 적어도 20~30년 이상을 정규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노후생활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간 우리나라는 노후의 삶을 자녀의 부양에 의존하였으나, 자녀의 부양의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노인 역시 자녀에게 부양을 받기보다는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려는 추세다[5]. 따라서 중고령자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학문적, 사회적 관심이 높다.

노후생활계획은[13, 29, 32]은 가족 생애 주기에 근거한 개념으로 노후에 필요한 자원들을 마련하고,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과 계획으로[9],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노후생활계획으로 분류[29, 19]하거나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여가적 노후생활계획[13, 32]으로 분류하는 등 노년의 삶을 위한 다차원적 차원에서 준비와 계획이다.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생활계획 수준은 경험적 연구[10, 12, 25, 33]에서는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국적 규모의 조사에 의하면 그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생활 준비 수준을 보면, 2004년도에는 28.3%, 2008년 33.8%가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39]. 통계청에서는 65세 이상의 33.8%가 노후생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40] 나타나 노년인구의 대략 30% 정도가 노후생활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에서 전국의 베이비붐 세대 4천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노후생활비는 월 211만 원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대비한 저축금액은 월평균 17만 2천 원에 그쳤다고 한다. 그나마 대상자의 겨우 절반만이 노후를 대비해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43],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노후생활계획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매우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생활계획이 중요한 것은 삶의 만족도와 긴밀한 관계[14, 28, 30, 34]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30~50대를 대상으로 한 임귀숙[34]의 연구에서는 여가 및 건강생활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6년 통계청 자료 중 베이비붐세대(55~63년생)를 대상으로 한 박선희[30]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도, 정서적 노후준비도,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을수록 노후생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광성호[28]의 연구에서는 건강 및 여가/정서적 대책 및 경제적 대책이 잘 되어 있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40대 이상의 중노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한 김주상·최수일[14]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노후준비, 사회적 노후준비, 경제적 노후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긍정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이나 대상에 따라 노후생활 계획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대체로 건강, 경제, 정서, 여가/사회적 노후생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경우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노후생활계획수준은 낮은 편이지만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고령자의 노후생활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제한점이 있다. 첫째는 연구대상의 문제이다.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취업자와 비취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거나 특정 직업군 혹은 특정 지역에 한정되어 있다. 전반적인 인구의 노후생활계획을 파악 하는데에는 도움이 됐으나, 비취업자의 경우 ‘노후’라는 터닝포인트에 대한 시기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노후생활계획에 대해 보다 막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년 혹은 은퇴라는 시기적 개념이 더욱 명확하여 노후생활계획이 좀 더 구체적일 수 있는 중고령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자료의 문제이다.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횡단적 연구로서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질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생애의 중반 혹은 그 이전부터 노후의 삶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노년 삶의 만족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연구설계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른 차이일 수 있으나, 노후생활계획의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종단적 자료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KLPS)의 데이터 중 노후생활계획 문항이 포함되어 있는 4차년도(2001년) 데이터와 11차년도(2008년)의 데이터[41]를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중단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취업자의 개인특성 및 직업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고, 둘째,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 및 중단적 영향을 파악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노후생활계획

KLPS에서 측정한 노후생활계획에 근거하여, 경제적 노후생활계획, 신체적 노후생활계획, 여가 사회활동적 노후생활계획,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1.2.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라는 용어는 1939년 Thornkike에 의해 문맹률과 영아 사망률, 생활수준과 같은 사회 통계치로 삶의 수준을 가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삶의 만족도에 대한 관심을 두던 사회과학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 시작한 [26] 용어이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자[8, 11, 16, 26]의 개념적 정의 보면, 개개인이 생활전반의 다양한 측면을 직접 체험하며 느낀 정도를 자신 스스로 그 가치를 기쁨과 우울의 지표로 평가하여 기쁨이 더 큰 상태를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LPS에서 측정한 삶의 만족도에 근거하여 ‘삶의 각 분야에서 만족하는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중고령취업자이다. 중고령층의 나이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으나 선행연구[4, 22, 18, 37]에서는 중년층을 40-45세 이후부터 60-65세 이전까지의 대략 20년을 중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KLPS의 자료 중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45세 이상 60세 이하(1940년-1955년생)의 중고령취업자 중 4차년도와 11차년도 동일 응답자이며, 2001년도 “취업 여부”에서 취업상태에 있는 43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2 연구자료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KLIPS) 조사 자료 [41] 중 2001년 4차년도 자료와 2008년 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4차년도와 11차년도 자료를 분석에 사용한 것은 4차년도 자료에 신규용 설문으로 “건강과 은퇴” 부분에 노후생활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11차년도 자료인 2008년도 데이터는 2008년도에 자료수집이 이루어져 2010년도에 공개된 자료로서 현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2.3 측정도구

다음 두 척도는 5점 리커트형 척도로서 분석 시 역코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1 노후생활계획

노후생활계획은 KLPS 4차년도 설문문항 중 ‘은퇴 이후의 생활에 대해 다음의 분야들에서 어느 정도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경제적 분야, 신체적 분야, 여가활동분야, 가족 관계분야, 친지/친척관계 분야, 사회 활동(생계를 위한 일은 제외)의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질문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과 사회활동을 합쳐서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으로 하였고, 가족관계와 친지/친척관계를 합쳐서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으로 하였다. 이렇게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가족관계와 친지/친척관계를 합쳐서 각각 하나의 문항으로 사용한 것은 예비 분석결과 여가활동과 사회활동, 가족관계와 친지/친척관계간의 분석결과와의 차이가 없었으며 변수 간 상관관계가 높아서 회귀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개별문항을 분석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뢰수준을 분석하지 않았다.

2.3.2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KLIPS 4차년도와 11차년도 설문 문항 중 ‘귀하의 생활에서 다음의 분야들에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라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분야로는 가족의 수입, 여가활동, 주거환경, 가족관계, 친인척관계, 사회적 친분관계의 6개 분야가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합산하여 하나의 변수로 사용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인 Cronbach's 알파값은 .85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중고령취업자의 개인특성 및 직업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생활계획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다. 노후생활계획에 따른 삶의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중고령 취업자의 개인특성 및 직업특성의 변화

첫 번째 연구목적인 중고령취업자의 개인 특성 및 직업특성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표 1] 중고령 취업자의 직업특성의 변화 (단위:명(%))
[Table 1] job characteristics change of the middle-elderly aged employees (n=433)

구분	2001년					X ²		
	80만 원 이하	81-120만 원	121-200만 원	200만 원 이상				
임금 (n=134)	80만이하	28(60.9)	8(20.0)	1(3.3)	0(0)	119.00 ***		
	81-120만	13(28.3)	15(37.5)	1(3.3)	2(11.1)			
	121-200만	5(10.9)	16(40.0)	16(53.3)	0(0)			
	200만이상	0(0)	1(2.5)	12(40.0)	16(88.9)			
2008년 종사상 지위 (n=242)	고용주/자영업자	고용주/자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422.42 ***	
		고용주/자영업자	영업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종사상 지위	영업자	81(84.4)	10(14.1)	1(5.3)	1(3.6)		3(10.7)
		상용직	9(9.4)	53(74.6)	5(26.3)	3(10.7)		1(3.6)
		임시직	4(4.2)	3(4.2)	5(26.3)	3(10.7)		0(0)
		일용직	1(1.0)	5(7.0)	7(36.8)	21(75.0)		1(3.6)
		무급가족종사자	1(1.0)	0(0)	1(5.3)	0(0)		23(82.1)
고용 상태 (n=105)	정규직		비정규직			36.16* **		
	정규직	52(72.2)	3(9.1) 30(90.9)					
국민 연금 (n=105)	가입상태		미가입상태			29.62* **		
	가입	32(74.4)		13(21.0)				
		11(25.6)		49(79.0)				

*** p<.001

3.1.1 중고령 취업자의 개인특성의 변화

중고령 취업자의 개인적 특성은 2001년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224명(51.7%), 여성이 209명(48.3%)으로 성별의 비율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통계청의 2001년도 경제활동인구 중 40세에서 59세까지의 중고령취업자의 성비를 보면(2001년도 12월 기준), 대략 남성이 60.6%, 여성이 39.4%로[40] 본 연구 집단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본 연구대상은 45세에서 60세까지 이나 통계청의 자료는 40세에서 59세까지 이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중고령취업자의 나이는 평균 52.73세이며, 학력은 초등 이하가 151명(34.9%), 중졸이 117명(27.0%), 고졸이 113명(26.1%), 대졸이상이 52명(12.0%)이었고 혼인상태는 유배우자가 359명(82.9%)이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가 135명(31.2%), 6대 광역시에 거주 117명(27.0%), 도지역 181명(41.8%)로 나타나서 대도시 거주자가 도지역 거주자에 비해 많았으며, 건강상태는 ‘상’인 경우가 114명(26.3%), ‘중’인 경우 127명(29.3%), ‘하’인 경우 192명(44.3%)으로 건강상태를 좋지 않게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중고령 취업자의 개인특성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동일대상이기 때문에 성별이나 나이(조사기간만큼의 변화가 있음), 혼인상태에서의 변화는 없었고, 거주지역과 건강상태에서의 변화가 있었다. 즉, 2001년에는 서울과 광역시 외 도지역이 41.8%였던 것이 2008년에는 44.6%로 나타나서, 2.8%의 중고령 취업자가 서울과 광역시에서 도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상태는 2001년에는 건강상태가 좋은 경우가 44.3%였으나 2008년에는 39.0%로 5.3% 감소하였으며, 보통인 경우는 2001년에 29.3%에서 33.5%로 4.2%가 증가하였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26.3%에서 2008년에는 27.5%로 1.2%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2 중고령 취업자의 직업특성의 변화

중고령 취업자의 2001년 대비 2008년의 임금을 보면, 2001년도에 81만원 이하, 81-120만원, 121-200만원의 중고령 취업자들은 2008년에 40% 이상의 임금상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1년에 2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받았던 중고령 취업자의 11.1%는 오히려 임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직위에 따라 대략 15-20% 정도 변화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자영업자와 일용직의 증가현상을 볼 수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변화를 보면, 2001년도에 정규직이었던 사람 중 27.8%가 2008년도에는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2001년도에 비정규직이었던 사람 중 9.1%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2001

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중 25.6%가 미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며, 미가입자 중 21%는 2008년도에는 가입자로 전환되었다.

3.2 노후생활계획 실태

두 번째 연구목적인 중고령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표 2].

[표 2] 중고령 취업자의 노후생활계획
[Table 2] the life plan for their elderly life of the middle-elderly aged employees (n=433)

노후생활 계획	평균(SD)
경제적 노후생활계획	2.44(.87)
신체적 노후생활계획	2.71(.73)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	3.12(.63)
관계적 노후생활계획	3.42(.65)

2001년 중고령 취업자의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은 5점 만점에 평균 2.44점, 신체적 노후생활계획은 평균 2.71점,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은 평균 3.12점,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은 평균 3.42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적 노후생활계획, 신체적 노후생활계획은 중앙값 3점 이하로 노후생활계획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과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은 중간 이상의 계획수준을 보였다.

3.3 노후생활계획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단기·중단적 변화

세 번째 연구목적인 중고령 취업자의 2001년 노후생활계획 수준이 2001년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과 2008년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하였다[표 3].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회귀분석을 하기 전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상관계수(.064에서 .515)와 회귀분석에서의 Durbin-Watson 값(1.853과 1.866)에 근거하여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는 중고령취업자의 개인특성 및 직업특성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 관한 t-test 및 oneway ANOVA 분석 결과 유의미한 변수를 선정하였다(표로 제시하지 않음). 본 연구에서 사용한 2개의 회귀모델은 유의하였고, 전체 13개의 변수는 삶의 만족도를 각각 14.0%와 22.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3] influence of life satisfaction from the life plan for their elderly life (n=433)

구분	2001년도			2008년도			
	B	β	t	B	β	t	
(Constant)	13.037		2.110*	12.798		2.623**	
통제 변수	성별	-.036	-.036	-.746	.008	.008	.167
	혼인상태	.189	.143	2.990**	.266	.189	4.136***
	나이	-.005	-.046	-.990	-.003	-.027	-.599
	학력	.175	.115	2.218*	.147	.092	1.970
	거주지	-.039	-.036	-.765	-.043	-.037	-.837
	건강상태	.052	.093	1.723	.148	.257	5.540***
노후 생활 계획	임금	.000	-.010	-.212	-.005	-.097	-2.129*
	종사상지위	-.178	-.095	-1.564	-.005	-.003	-.049
	정규직여부	.051	.028	.437	.117	.061	1.099
통제 변수	경제적	.056	.098	1.792	.070	.115	2.211*
	신체적	-.072	-.106	-1.646	-.048	-.066	-1.244
	여가사회적	.146	.184	3.037**	.054	.064	1.117
	관계적	.021	.027	.502	-.034	-.042	-.824
F	4.239***			8.153***			
R ²	.140***			.227***			
R ² 변화량	.046***			.014***			

* p<.05, ** p<.01, ***p<.001

* p<.05, ** p<.01, ***p<.001

주)성별(1=남), 혼인상태(1=유배우자), 학력(1=대졸이상), 거주지(1=서울), 종사상지위(1=일용직), 정규직여부(1=정규직)

먼저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보면(통제변수를 제외하고)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생활수준이나 신체적 노후생활수준,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중단적 영향을 보며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노후생활계획이나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은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삶을 즐기기 위한 여가사회활동의 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4. 논의 및 제언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급속한 한국의 상황에서 노후생활계획은 개인에게나 우리 전체 사회 양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나 기존의 선행연구는 연구대상이나 연구자료에서의 제한점이 있어서 장기적 안목에서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후생활계획이 단기적으로, 그리고 종단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노동패널(KLIPS) 4차년도(2001년)와 11차년도(2008년)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200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45세 이상 60세 이하의 중고령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취업자는 2001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 도지역인 지방으로 이주가 늘어났는데 이는 중고령 취업자 중 은퇴 후 혹은 재취업 등의 이유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최근 은퇴농장이나 은퇴 후의 전원주택에서의 삶을 바라는 경향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2008년 중고령자의 시군구간 전입인원은 461,055명인데 반해 시도간 전입인원은 432,131명으로 나타나서[40]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건강상태의 변화는 8년의 기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직업특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소득자의 임금은 증가하였으나 고소득자의 임금은 감소하였고, 정규직의 감소와 비정규직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서도 상용직의 감소와 일용직 및 자영업자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통계청의 자료에서도 2001년도 중고령취업자의 근로형태는 비정규직이 1,141명인데 반해 2008년에는 1,610명으로 늘어났고 한시적, 시간적 근로형태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40]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국민연금의 가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고령취업자의 은퇴와 재취업, 그리고 재취업 시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전환 등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직업특성의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개인특성과 직업특성의 변화를 집약해 보면 중고령취업자는 지난 8년 동안에 건강상태와 경제상태가 좀 더 불안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후생활을 위한 계획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노후생활계획이 시간이 흐른 뒤 종단적으로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려하고 계획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첫 번째 연구결과를 통해 중고령취업자의 건강과 경제상태가 나빠졌음을 알 수 있는데, 중고령취업자들은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이나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노후

생활계획에 비해 신체적 노후생활과 경제적 노후생활에 대한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20, 21, 10, 12]의 결과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수준이 낮은 것은 서울대 노화고령사회연구소[43]의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노년기 어려움으로 경제와 건강 문제가 1위, 2위를 차지[42]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고령자의 경제적인 측면과 신체적인 측면에서의 노후생활계획이 부족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건강상태와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진 것을 고려해 보면, 신체적 노후생활계획이 부족한 경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상태가 악화되고,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이 부족한 경우 취업이나 고용 등 경제상태가 악화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중고령자이기 때문에 세월의 흐름에 따라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으나, 다른 한 측면에서 봤을 때 노후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후생활계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의 중고령자는 현재의 노인에 비해 자신의 노후의 삶에 대해 보다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우리사회의 가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고령층 혹은 베이비붐 세대는 현재의 노인세대보다 노후생활계획을 잘 세우고 있어서, 이들의 노후에는 사회활동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두어 여러 가지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 즉 노후의 사회활동,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등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적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노년의 삶을 위해 보다 기본적인 측면 즉, 건강과 경제의 측면에서의 노인복지정책이 보다 확고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2001년도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과 종단적 영향을 살펴본 결과, 2001년도의 경우에는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에는 경제적 노후생활계획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적인 데이터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으로 비교가 어려우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14, 28, 30, 3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2001년도와 2008년도에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여가사회활동 노후생활계획에서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삶을 즐기기 위한 여가사회활동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중고령취업자의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수준은 낮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노후생활계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결과이며 그간 횡단적 연구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던 결과이다.

특히 자료수집의 시점인 2001년도에 만 45~60세에 취업상태에 있었던 중고령취업자는 중산층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 신체적 측면의 노후생활 준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노인만이 아니라 10년 혹은 20년 이후의 노인들도 경제적인 삶과 신체적 건강의 삶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생활계획을 전 생애적 관점에서 세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책과 제도를 광범위하고 폭넓게 마련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개인연금이나 노령연금 및 국민연금이 현재의 노인의 경제적인 삶을 위해 상당히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개인적 차원에서는 중고령기부터 혹은 신혼기부터 점차 길어지는 노후의 삶을 위한 경제적 생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교육적 차원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노년기의 발달과 노년기 삶의 특징, 노년기 가족관계 등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면서 이러한 내용이 중고등 교과서에서는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의 노후생활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적 차원에서는 신입사원부터 연령별로 다양한 건강상담과 경제상담, 노년기 교육 및 은퇴교육을 통해 노후의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연금이나 고령연금의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노후생활계획이나 관계적 노후생활계획은 삶의 만족도에 단기적으로도 그리고 중단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박선희[30]와 김주성과 최수일[14]의 연구에서는 횡단적 결과이긴 하나 중고령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노년기의 삶에서 건강과 가족 및 친척,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측정도구의 문제로 생각된다. 즉 현재 사용한 노후생활계획 도구는 하위영역별로 단일문항으로써 노후생활계획을 심도 있게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는 2차 자료의 사용에서 오는 제한점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노후생활계획에 대한 보다 정교화 된 측정도구의 사용을 통해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그간 횡단적인 연구에서는 밝힐 수 없었던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2001년도의 사회경제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시점에서 2001년도의 데이터와 2008년도 데이터를 사용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중단적 연구가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제한점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특성과 직업특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노후생활계획이 삶의 만족도에 미칠 수 있는 단기적 영향과 중단적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를 단일 연구 수준에서 모두 고려할 수는 없었다는 점을 제한점으로 밝힌다.

References

- [1] Sohn, H. H. & Chung, O. B. "An Ecological Approach to Study the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ly Receiving Home-Based Social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19(1), 83-103, 1999.
- [2] Chung, Y. S. "Satisfaction with Consumption and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Korea Society of Consumer Studies*, 10(1), PP. 43-59, 1999.
- [3] Choi, K. O. & Jo, H. S. & Kim, C. Y. "A study on health behavior of middle aged men",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15(2), pp. 412-427, 2001.
- [4] Berg, E. C. & Trost, M. & Schneider, I. E. & Allison, M. T. "Dyadic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of Leisure Satisfaction, Leisure Time, and Gender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Leisure Science*, 23, pp. 35-46, 2001.
- [5] Lee, S. H. & Lee, J. S. "A Concept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Aged", *Korea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4, 588-595, 2002.
- [6] Lee, S. J. "A study of how to guarantee an income policy for old people in an aging society", *Jeonbuk gazette for Administration*, 16. 173-204, 2002.
- [7] Morocz, Daniel K. & Sprio Avron III, "Change in Life Satisfaction During Adulthood: Findings from the Veterans norma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pp. 189-202, 2005.
- [8] Kim, M. R. "The Study of Comparing the Factors of Affecting on the Quality of Life for Young-Old Women and Old-Old Wome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58(2), 197-222, 2006.
- [9] Park, C. J. "Economic Preparations for Aging of the Middle and Old-Aged and Their Determina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16(3), 275-297, 2008.
- [10] Go, J. O. & Kim, J. S. "A Study on Lifestyle and Preparation Behavior for old Age Life of Middle-aged Female Consumers",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5(3), 17-39, 2009.
- [11] Bae, n. r. & Park, C. S.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People",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9(2), 761-779, 2009.
- [12] Lee, J. H. "The Middle Age's perception of Aging and Physical, Financial & Social Preparation for Later Life: Focus on Gender Differences", *The Korean journal of community living science*, 20(2), 275-289, 2009.
- [13] Cho, C. Y. & Song, M. Y. & Lee, K. S.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43, 135-156, 2009.
- [14] Kim, J. S. & Choi, S. I. "The Effects of Lifestyle o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3), 97-119, 2010.
- [15] Shin, S. S. & Choi, S. I.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Leisure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Studies*, 12(3), 173-189, 2010.
- [16] Go, S. D. "A study on the Deciding Factors abstraction of old person's Life Quality",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s, 1995.
- [17] Kim, J. H. "The Alternative Way to improve the Degree of Work Satisfaction for the Agricultural Extension Officials in Kangwon Provinc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gwon, 1995.
- [18] Choe, S. J. "A study of the quality of life in old peo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Ewha Woman's, 2000.
- [19] An, B. R. "A Study on the Preparation of Middle-aged Employees for Their Retired Liv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Dongguk, 2006.
- [20] Kim, Y. C. "A study on the middle-Age people's preparation for old ag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osun, 2007.
- [21] Chung, A. R. "A Study on preparation for Elderly life of Middle-aged -focused on Gwangju · Jeonnam mal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Mokpo National 2007.
- [22] Lee, E. J. "The research on the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of the old: focused mainly on the old living in citi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hee 2007.
- [23] Jo, G. S. "Social activities and contentment in life of elderly: focus on elderly women in solitude in the island region and urban reg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seo, 2007.
- [24] Lee, H. J. "A Study on Influence about Seniors' Quality of Life with Preparation for Income after Retir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eoul, 2008.
- [25] Kim, J. Y. "Preparation for Age in Mid lif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okmyong Women's, 2009.
- [26] Ryu, Y. M.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Old",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Ajou, 2009.
- [27] Choi, H. S. "The Quality of Life and Acknowledgment on the Preparation For the Old Age of the Participants in Life-long Education Program of Public library",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Yeungnam, 2009.
- [28] Gwak, S. H. "The Effect of Perception and Preparation for Age Life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oseo, 2010.
- [29] Park, B. M. "Decisive factors in economic preparation for old age in middle-aged women: focusing on family-related variable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Yonsei, 2010.
- [30] Park, S. h.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Retirement Pla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orea, 2010.
- [31] son, w. "Middle-aged household's Financial Preparation for Retirement: Focused on Married Couple Employment Status",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ungnam National, 2010.
- [32] Shin, S.H. "The decision factor on thinking against their old age of the middle genera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sung, 2010.
- [33] Yun, H. J.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and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angwon, 2010.
- [34] Im, K. S. "A study on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for preparation of old life",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nyang, 2010.
- [35] Cho, S. H. "Elderly Men's Degree of Satisfaction with Life in Relation to the Level of Retirement Prepar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aekseok, 2010.
- [36] Cha, Y. J. "An effect which participation of an

- Middle-Aged Women in yoga practice has on life satisfaction”, Unpublished Master dissertation, University of Kyung Hee, 2007.
- [37] Chun, S. Z. & Kim, G. M. Z. & Park, J. S. & Lee, M. F. & Cho, K. S. & Kim, H. K. "Medial & surgical nursing, Seoul", Hyunmoonsa, 2005.
- [38] Yu, S. H. & Mo, S. H. & Kim, H. S. & Yun, K. A.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 PP. 397, Asia Media Research, 2002.
- [3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 Survey of the Elderly", 2004, 2008.
- [40] Statistics Korea. "Try star future population fall materials", 2011.
- [41]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001, 2008.
- [42] Seoul City, "Seoul Welfare Foundation", 2011.
- [43] <http://www.gnmaeil.com>. 2012. 04. 02.

안 기 선(Gi-Seon An)

[정회원]



- 2006년 8월 :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문학석사)
- 2011년 8월 : 한서대학교 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문학박사)
- 2004년 4월 ~ 현재 : 서산자원봉사협의회 회장

<관심분야>
지역복지, 노인, 가족

김 윤 정(Yun-Jeong Kim)

[정회원]



- 199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문학석사)
- 2000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문학박사)
- 2001년 3월 ~ 현재 : 한서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공적 노화, 노인자살, 노인의 정신건강, 베이비붐세대, 다문화가족 등